

한·중과 관계강화 표방하더니...

아소 日 총리 '망동' 파문

야스쿠니 신사에 공물봉납...한·중 즉각 반발

아소 다로 일본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의 총계대제 첫날인 21일 이 신사에 '내각총리대신'이란 이름으로 화분을 보내는 등 공물을 봉납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한국과 중국이 즉각 반발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아소 총리는 한국과는 정상간 셔틀외교를 통한 관계강화를 강조해 왔고 오는 29일에는 중국을 방문할 계획을 갖고 있는 등 주변국과의 관계개선을 도모하는 모양을 연출하면서도 2차대전 당시 A급 전범이 합사돼 있는 이 신사에 공물을 보내는 이 중적인 행보를 보여 그의 일련의 '우호 조성' 행보가 말뿐이었다는 비판에 직면하게 됐다.

더욱이 지난해 10월 이 신사의 추계대제 기간에도 은밀하게 공물을 보내는 등 취임 후 두차례에 걸쳐 같은 일을 반복한 것으로 드러남에 따라 파장도 확산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아소 총리측은 파문 확산을 막기 위해 "개인 부담으로 '마사카키'라고 불리는 공물을 보냈다"고 개인 차원에서 이뤄진 일임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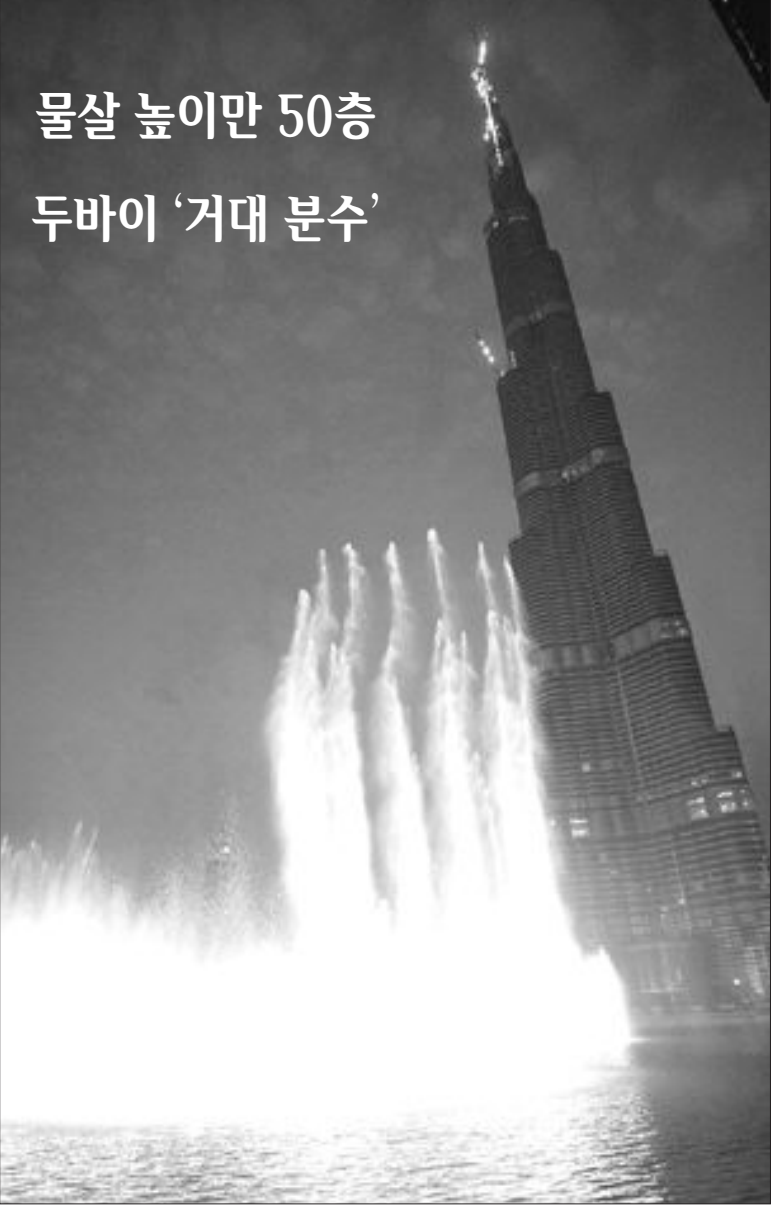
그러나 신성한 것으로 여겨져 주로 신전에 바치는데 사용되는 마사카키 나무는 '내각총리대신'이라는 직함으로 봉납했다는 점에서 이런 해명은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다.

이에 한국 정부는 문태영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과거 침략전쟁

을 미화하고 전쟁범죄자를 합사한 야스쿠니 신사에 아소 다로 총리가 공물을 보낸데 대해 역사 인식 정립 측면에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비판했다.

장위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일본이 양국간 정치적 장애의 극복과 우호·협력 관계의 건강한 발전을 위한 합의사항을 실제로 준수하기를 희망한다"면서 "적절하고 신중하게 이 문제를 처리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야스쿠니 신사는 중·일 관계에서 중요하고도 정치적으로 민감한 문제"라고도 지적했다.

일본 정치권에서는 주변국의 반발이 분명한 상황에서 아소 총리가 두차례나 야스쿠니신사에 공물을 보낸 것은 자민당의 주요 지지세력인 보수파의 결집을 겨냥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물살 높이만 50층 두바이 '거대 분수'

20일(현지시간) 세계 최고 빌딩인 두바이의 부르즈두바이 앞 호수 거대 분수가 화려한 조명 속에 물살을 뿜어내고 있다. 이 분수는 물살의 최고 높이가 건물 50층 높이와 맞먹는 500피트(152m)에 달해 세계 최고 높이의 분수 중 하나로 꼽힌다는 것이 제작사 측 설명이다.

“北, 로켓 발사 실패 간주”

뉴스위크지 “우주 프로그램 담당자 질책받아”

북한이 장거리 로켓을 성공리에 발사했다고 주장했지만, 실제 북한 내부에서는 이를 실패로 간주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시사주간지 뉴스위크에 러시아관이 최근 보도했다.

21일 뉴스위크에 따르면 북한이 로켓을 발사한 다음날인 지난 6일 평양에서 로켓 비행 분석 회의가 열렸으며, 이 자리에서 우주 프로그램 담당자가 질책을 받았다.

이는 곧 북한이 자신들의 (로켓 발사) 실패에 대해 심각하게 보고 있으며 새로운 로켓 발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뉴스위크는 풀이했다.

북한은 그러나 국제사회로부터 도움과 관심을 이끌어내기 위

해 로켓 프로그램을 계속할 것이라고 뉴스위크는 전망했다.

뉴스위크는 이와 관련해 북한은 냉전시대 이후 세상과 소통하는 독자적인 방법을 만들어냈다면서 이는 인위적으로 위기 상황을 만들어 국제 파트너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으로 3억 달러가 소요된 이번 로켓 발사를 통해서도 이런 목표를 달성했다고 평가했다.

이에 대해 모스크바의 한 북한전문가는 “북한이 대외적으로 로켓 발사에 실패했다고 인정할 리 만무하다”면서 “북한은 발사 실패 여부보다 로켓 발사 자체에 큰 의미를 두었고, 체제선전과 국제사회 관심 환기 등 직장은 성과도 거뒀다”고 말했다.

“北, 핵 보유국으로 인정해야”

IAEA 사무총장 밝혀

모하메드 엘바라데이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총장은 20일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IAEA 주관 국제회의의 참석차 베이징을 방문한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북한이 핵무기를 갖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라며 “나는 어느 국가를 핵보유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원하지 않지만 우리는 현실을 직시해야 한다”고 말했다.

엘바라데이 총장은 북한을 포함, 9

개국을 핵보유국으로 거명했다.

엘바라데이 총장의 이 같은 발언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는 미국의 견해를 뛰어넘어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사실로 인정할 것이다.

미국, 러시아, 중국, 프랑스, 영국은 핵비확산조약(NPT)에 따른 공식 핵보유국이며 인도, 파키스탄, 이스라엘은 사실상의 핵보유국으로 인정받고 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또 북한이 몇 달내 주요 핵시설을 재가동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북한과 국제사회 간의 교착상태가 길어질수록 상황은 더

욱 악화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따라서 북한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협상 테이블로 복귀할 수 있도록 설득과 해결책 마련 노력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엘바라데이 사무총장은 아울러 버락 오바마 행정부 출범 후 북미간 새로운 대화의 길이 열릴 수 있다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근래 북한에서 일어난 상황이 후퇴라는 점에 실망하지만 새로운 환경에서 대결이 아닌 건설적인 공동의 토대를 지향하는 접근이 이뤄질 것으로 낙관한다”고 말했다.

‘한때 위독’ 호킹박사 병세 호전

급성 호흡기 감염 증세로 20일 밤 병원에 실려온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67) 박사의 병세가 다소 호전된 것으로 21일 전해졌다.

호킹 박사는 전날밤 상태가 악화돼 응급조치를 위해 엠블런스로 케임브리지의 아덴브룩스 병원에

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케임브리지대학은 전날밤 그가 매우 위중한 상태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이 대학 대변인은 21일 호킹박사가 편안한 상태에서 입원중이라고 말했다고 데일리메일 인터넷판이 보도했다.

합격을 받아 시인 학원만이 공무원합격의 Know-How 를 만든다!

수석합격 7·9급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합격률 95% / 100% 합격률 보장 / 100% 합격률 보장 / 100% 합격률 보장

www.hanbit.com

한빛고시학원

합격률 95% / 100% 합격률 보장 / 100% 합격률 보장

한빛행연세

7·9급 공무원 합격의 해법은 한빛에 있다!

합격률 95% / 100% 합격률 보장 / 100% 합격률 보장

www.hanbit.com

한빛고시학원

합격률 95% / 100% 합격률 보장 / 100% 합격률 보장

남성강한 힘

자신감을 잃은 30-80대 남성들 위한 남성기억증후군 예방/치료제

▶ 발아미네산염 함유 남성 활력유제
▶ 강한 힘! 남자는 자신감이!
▶ 한약생약재로 엄선하고 성취

TEL: 042-200-5000